**교제와 나눔**

**\*\*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\*\***

**ㆍ교회당예배:** 매주일 15시 예배,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.

**ㆍ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세요:** Teestube에 차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
**ㆍ성경 300독 대행진:** 매일 성경 네 장씩 읽어 1년 1독 신고하세요.

**ㆍ디아코니축제-전교인 만남의 날:** 9월 11일 주일, 음식 바자

**ㆍ매일성경 9,10월호 받아가세요.**

**ㆍ제직운영위원회:** 다음 주일 예배 후 예배당

**ㆍ겨자씨 모임:** 8월 20일(토) 15시 Teestube

**ㆍ유학:** 백승혁(->St. Galen)

**ㆍ귀가:** 손재호-정수연,권순아-크리스챤 쉬빌라

**ㆍ생일:** 조건하, 전정혜, 박승희, 송인선

**\*\* 함께 기도합시다 \*\***

1)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.

2)모이기에 힘써, 배움과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.

3)코로나19를 넘어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가게 하소서.

4)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, 삶 속에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.

5)공의와 평화의 주여,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.

**◆말씀일기 일정**

일/레25:1-22 월/레25:23-38 화/레25:39-55 수/레26:1-13

목/레26:14-26 금/레26:27-39 토/레26:40-46 일/레27:1-15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성경 300독 대행진: 201독 성경필사: 김한진(2회), 신일수(1회)**

**◈ 예배위원 안내 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8월 14일** | **8월 21일** | **8월 28일** | **9월 4일** |
| **예배기도** | 김평님 | 오지훈 | 서영지 | 이선영 |
| **말씀일기** |  | 단주현 |  |  |
| **안내위원** | 예배부 | | | |
| **헌금위원** | 오지훈 민경웅 | | | |

**39-33호 2022년 8월 14일**



**“서로 위로하라”**(살전4:18)

주일예배 15:00 Mutterhauskirche

유초등부 15:00 Teestube

청소년부 15:00 Teestube

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

토요기도회: 07:00 각 가정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 누구든 어디서나

**담임/ 손교훈 목사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교육/ 김요한 목사** HP. 0176-5574 1290

**교육/** **이동훈 목사** HP. 01525-2367 629

**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**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8일 창립 **뒤셀도르프선교교회**

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**교회주소Alte-Landstr. 179, 40489** **D****üsseldorf**

**주 일 예 배**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※입례송/Eingangslied ……………. 왕이신 나의 하나님 …………………  ※예배부름/Eingangs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 | 다함께  인도자 | | | 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….…… 4장 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| 다 함 께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 | | 다함께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…….…. 교독문 47번 …………….............. | | 다함께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.…….……. 374장 ……….………………..…… | | 다함께 |
| 기도/Gebet …….................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…………..............  찬양/Chor ……..............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……… | | 김평님 집사  서민규 집사 |
| 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………..….. 창세기17:1-14 ……………….….… | | 인도자 |
| .설교/Predigt ..…...…...................... **이상한 하나님 여호와** ………………. | | 손교훈 목사 |
| 찬송/Gemeindelied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393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….…  봉헌/Kollekte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| 다 함 께  다 함 께 |
| 교제/Bekanntmachung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…..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 | | 다함께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| 다함께 |
| ※축도/Segen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 | | 손교훈 목사 |

**※ 표는 일어섭니다.**

**\*\*교회 구좌\*\***

Ev.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.V.

Bank: Stadtsparkasse Düsseldorf

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

**▶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레21:16-22:9 ‘조심스럽게’ ◀**

제사장은 예배 준비에도 만반을 기해야 하지만(레21장), 특히 예배에 드려진 예물과 관련하여, 예배 중이나 예배 후에도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. 어깨는 또 다시 무거워지고…

오늘은 특히 22장 2절 말씀에 눈이 간다. 이 부분은 개역성경보다도 ‘쉬운성경’의 번역이 훨씬 이해가 쉽고, 살아있다. “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.” 새번역에는 이 대목이 “…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”라고 되어 있다.

크게 세 가지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일 것이다. 우선은 교우들이 흠 없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, 둘째는 교우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이제 ‘성물’이 되었으므로 교회 안과 밖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고, 셋째는 그 ‘성물’의 일부를 생활비로 받아쓰는 내가 ‘성물’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“욕되게 함이 없도록”(2) 해야 한다는 것이리라.

교우들이 주님께 드린 ‘성물’의 일부를 내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무조건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함을 또 절감하며, 오늘 특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, 우리 교우들이 더욱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결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(18-25). 오늘도 하나님은 정직한 십일조와 더욱 다양한 제목의 감사 예물을 기대하고 계신다. 정성과 감사로 채워진 흠 없는 예물이 드려질 때, 우리 교회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써 섬기고, 이웃을 향해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.

나부터도 그렇듯이, 결국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, 그 중에서도 특히 손에 쥐어지는 이 ‘물질’을 어떻게 드리고 있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첫 단추가 아닐까? 그렇다면 이 점을 교훈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, 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우들을 향해 말하기를 힘들어 하고, 어쩌다 말을 한다 해도 좀 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. 교우들의 힘겨운 살림살이를 이해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더욱 정결한 예물을 드리도록 권면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쯤일까? 나는 오늘도 그 경계 사이에서 방황(?)하고 있는지 모른다. ‘선교’교회의 미래를 위해 힘써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할 거라는 생각에 더욱.